

吳濁流 소설속의 女性形象 小考*

俞載星** · 李鎔泰***

目 录

1. 들어가는 말
2. 창작 배경
 - 1) 吳濁流의 생애와 문학관
 - 2) 작품의 시대적 배경
 - 3) 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
3. 작품속의 여성형상 분석
 - 1) 전통적 여성형상
 - 2) 반전통적 여성형상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대만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 일본으로부터 피식민지 생활을 하였다. 吳濁流는 대만 광복 전후 시기의 사실주의 작가이다. 우리가 吳濁流의 문학작품을 통해 대만의 일제강

* 본 논문은 2019년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瑞逸大學校 비즈니스中國語科 副教授

*** 白石文化大學校 글로벌語學部 教授

점기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알아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 사실에 대하여, 鍾肇政은 일찍이 吳濁流의 문학은 일본식민지 통치를 반영한 문학작품으로 알려져 일본에서 재차 중시를 받았다고 하였다.¹⁾ 특히 대만인들은 吳濁流의 작품이 대만 역사상의 실재적 시대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²⁾

최근 여성관련 연구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필자는 양성평등, 여권운동 등 여성 관련 문제들에 대해 현대사회는 갈수록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사실주의 작가인 周作人은 여성 문제에 대하여 봉건 윤리에 반대하는 범주가 아닌 여성의 권익 보호를 제창하는 등 여권 사상과 현대 중국 여성운동으로까지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의 이론은 신문화운동 초기에 봉건 압박을 반대하고 여성의 독립적인 인격의 회복을 제창하고자 했던 당시 진보된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여성 문제에 대한 토론이 더욱 활발해졌고, 여성 문제를 단순히 봉건 윤리에 반대하는 범주가 아닌 여성의 권익 보호를 제창하는 쪽으로 흘렀다.

대만의 경우는 어떠하였을까? 대만은 일제강점기 이전엔 봉건주의를 신봉하였고, 일제강점기엔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 아래에 남아선호사상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여성을 하나의 사회적 부속이라 생각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吳濁流의 작품이 당시 대만 사회의 시대적 상황을 충실하게 잘 반영했다고 판단하고, 吳濁流의 소설 속에서 여성을 소재로 하는 작품을 선별하여 일제강점기 전후의 대만 사회에서 여성들의 삶의 흔적들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 사회 전반에 관습이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앉아 있는 봉건적·헤게모니적 삶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일제강점기 전후의 대만 여성형상이 吳濁流의 소설 속에서 어떻게 그려졌는지 탐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

1) 鍾肇政, 「看! 吳濁流文學」, 『臺灣文藝』77期, 1982, 53쪽.

2) 鍾肇政, 「風雨憶故人」, 『亞細亞的孤兒』, 臺北: 遠行出版社, 1972, 39쪽.

련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전후 대만 여성의 형상을 분석해서 대만의 사회현상과 여성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2. 창작 배경

1) 吳濁流의 생애와 문학관

吳濁流(1900~1976)는 臺灣 新竹縣 新埔鎮에서 태어난 客家 사람으로, 그는 시인·소설가로 활동하였으며, 『臺灣文藝』 및 吳濁流文學獎基金會의 창시자이고 문학운동가이며, 대만 광복 전후 시기의 사실주의 작가이다. 그 역시 외국에 유학한 경험이 없는 순수 대만 토종 작가로서 어려서부터 漢學 교육을 받았다. 그의 할아버지 吳芳信으로부터 반 은거식의 생활 및 초현실적 태도 중용적 처세 등의 영향을 받았다.³⁾ 장성해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하에 일본식 교육과 외국문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당시의 중국 및 세계 상황에 대해 신문·잡지 등을 탐독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혔다.

吳濁流는 1916년 17세 때 대만총독부 臺北사범학교에 입학하였고, 1920년 21세 때 졸업하면서 대만 新埔公학교 照門分校 주임에 임명되었다. 이후 1927년엔 苗栗詩社(약칭 栗社)에 가입하고 고전시를 창작하였고, 1931년엔 폐결핵이 의심되어 학교를 휴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요양생활을 하였다. 吳濁流는 1934년 일본어로 소설 창작을 시작했다. 그의 작품 배경은 일제 강점기의 대만 식민생활과 광복 후의 사회혼란 및 세계경제공황의 시대적 배경하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보갑제도(保甲制度)·

3) “母親爲了家中的事，園裏的事，三餐的飯食，飼豚、雞之外，又要照顧弟妹，已忙不過來。因此把我完全交給了祖父。所以，自我有意識起，就只愛祖父一個人的愛，被疼濁愛到放到眼裏也不痛的程度。因此，和母親生活的事雖忘記了，和祖父一同生活的事是不能忘懷的。”(吳濁流，『臺灣連翹』，臺北：前衛出版社，1991，24쪽)

황민화정책·경제약탈·사회생활 및 비굴한 인생 등의 상황 모습은 극히 사실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吳濁流는 소설 창작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내가 쓰는 소설에는 역사성의 성격이 있고, 저술한 각 편은 사회의 진정한 한 단면이다. 현재 19편을 선정해서 출판하는데, 그것을 연관 지어볼 때, 일제 강점기 및 광복 후의 사회상황의 투영, 그리고 정치적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동시에 왜곡된 사회현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本省의 내막을 볼 수 있다.⁴⁾

이러한 소설관점은 그의 사실주의 문학관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그는 “문학은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상업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혹은 그 밖의 것은 모두 안 된다. 만약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문학 자체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학의 생명은 예술이다. 그러므로 문학은 예술과 분리될 수 없다.”⁵⁾라고 주장하였다. 또 1975년 쓴 평론에서 “문학은 문학일 따름이다. 절대적인 자유 상태에서만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아침하는 것은 문학이 아니며, 구호를 외치는 것 또한 문학이 아니다. 문학은 예술일 뿐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그것을 상업 도구로 사용하려다 실패하고 전쟁 전에 그것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다 안 되었던 것이 그러한 예이다.”⁶⁾라고 주장했다. 즉, 문학의 정치적 수단에 반대하고, 문학 자체

4) 我寫的小說帶有歷史性的性格，所寫的各篇都是社會真相的一斷面，現在選出十九篇付梓，若將此十九篇連串起來，日據時代及光復後的社會情形之投影，以及政治的影響不消說，同時，社會的歪風畸形怪相也加以窺見的，所以亦可作為本省社會之內幕來看吧。（吳濁流，『吳濁流選集自序』，臺北：遠行，1977，17쪽）

5) 文學不能來做工具，無論是商業上，抑是政治上，或其他都不行，如果拿來做工具的話，一定影響到文學本身的生命。原來文學的生命是藝術，所以文學不能遊離藝術。（吳濁流，「文學就是文學，不是工具」，『臺灣文藝』11期，1966，30쪽）

6) 文學就是文學，要有絕對自由意識才能產生好作品，拍馬屁的，喊口號的治不是文學，文學是藝術不能拿來做工具，象日本當作商具也無成就，戰前拿去做政具也不行。（吳濁流，「對文學的一二管見」，『臺灣文藝』46期，1975，75쪽）

의 목적만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그 창작물 내용에는 역사적인 상황들이 많이 묻어난다. 張良澤은 吳濁流의 작품이 역사성과 사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작품은 기교, 주제 외에 사람의 정신을 높은 경계에 까지 승화시켜야 되고,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높고, 더욱 먼 미래세계를 동경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吳濁流의 작품을 읽으면 이러한 승화의 역량이 결여되어있고, 단지 역사의 추악한 세계에 멈춰져 있다. 큰 울림의 결여는 내 생각에 그의 작품에 예술성이 부족한 점이라 생각된다.⁷⁾

비록 吳濁流의 작품은 예술성은 좀 부족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성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하면서 대만인들은 일본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尊王攘夷의 정신을 강요를 받았다. 일본 제국주의는 이러한 일본의 尊王攘夷의 일환으로, 대만인들을 전쟁터로 동원되기 위해 군사교육에 매진하고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켰다. 吳濁流는 1942년 南京에 1년 넘게 있으면서 “日本國臺灣人” 기자의 눈으로 본 일본에 점령된 중국도시의 상황을 10개월 동안 연속해서 『臺灣藝術』에 「南京雜感」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대만문인들은 保身주의로 소설을 쓰되 발표는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吳濁流는 대만 광복 후 2년간 관찰한 사회와 느낌 및 개선 사항을 1947년 6월 수필집 『夜明け前の臺灣』에 담아 발표했다. “대만청년이 걸어가야 할 길” · “노예화교육과 대만교육에 관한 소견” · “신시대와 함께 가자” · “대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민주정치와 정치인재” 등이 그 내용으로 이것은 당시 사회현상이 깊이 있게 반영했다고 호평을 받았다. 1963년에는 일제

7) 偉大的作品除了技巧、主題外，應該是把人的精神提昇到更高的境界，看完後能令人憧憬一個更高、更遠的未來世界。讀吳濁流的作品欠缺這種提昇的力量，我們只能和作者一樣停留在一個歷史貌的醜化世界。沒有很大的力量，我認爲這是他作品藝術性不夠的地方。(張良澤，「不滅的詩魂——吳濁流作品研討座談會記錄」，『臺灣文藝』58期，臺北：臺灣文藝，1978，175-176쪽)

강점기 사회의 불공평과 부정부패한 상황을 풍자한 단편소설과 수필·논문 3편을 포함해서 『瘡疤集』 2권을 출판하였다. 1964년에는 『臺灣文學』을 창간해 대만 현대문학을 부흥하려 했고, 1965년에는 신인 창작의 독려를 위해 臺灣文學獎을 제정하였으며, 1976년 10월 7일 병으로 향년 77생을 마감하였다.

2) 작품의 시대적 배경

대만의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보다 15년 앞선 1895년부터 시작되었다. 일제 식민지에서 대만인의 삶은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국가 모든 분야에서 중국 전통적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버리고, 식민사회의 새로운 시기에 부합되어야 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나타났다. 葉石濤는 대만의 일제강점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나는 마치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 같았고, 학교에서, 사회의 공개된 장소에서는 반드시 일본어를 이야기해야 했으며 일거수일투족 모두 일본 사람과 같아야만 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일본인의 모든 것은 대문 밖에 내버려 두고 대만 말로 이야기하고, 馬祖廟와 각종 묘를 다니며 참배하고, 이따금 어른들로부터 중국 대륙의 전승과 고사를 듣는 전통적 생활방식을 따랐다고 말한 바 있다.⁸⁾

일본 제국주의는 대만인들에게 일본인이 되면 일등 국민, 그렇지 않으면 이등 국민으로 나누어 사회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부여하였고,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尊王攘夷의 정신을 고취시켜, 일본인=국민=사람으로 호명될 수 있는 일본제국의 同化和 皇民化政策에 순응하는 것이었다.

1945년 臺灣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으로부터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國民黨 정부에 귀속되었다. 그러나 국민당은 적은 관리로 대만을 관리하기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1945년 8월 27일 陳儀가 대만성 행정장관으로

8) 葉石濤, 『一個臺灣老作家的50年代』, 臺北: 前衛出版社, 1991, 7쪽.

임명되어 대만 통치를 전담하게 되었는데, 가토 후미요시는 『대일본제국붕괴』에서 당시 대만의 분위기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1945년 8월15일 12시, 대만에서도 일본천황의 육성방송이 라디오로 흘러나왔지만, 臺北의 거리는 식민지 해방과 조국 복귀를 축하하는 분위기로 일변하지 않고 패전 전과 다름없는 일상이 계속되었다. 9월2일 항복 문서 조인식 이후 대만은 중국의 전쟁지역으로 취급되었다. 9월9일 남경에서 중국 전쟁지역 항복식이 실시되어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과 시정권의 이양이 이루어졌다. 이날 이후 국민정부에 의한 대만의 인수가 시작되었지만, 중국 측의 행동은 신속하지 못했으며 일본의 지배가 계속되었다. 당시의 대만 주민들이 제일 먼저 부족했던 것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였다. 이는 조선에서 정치적 흥분이 고조된 결과 정치단체들이 난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광경이었다.⁹⁾

국민당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던 것인데, 당시 상황에 대해 賴澤涵 등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

1946년 말 陳儀 정부의 대만 경제활동에 대한 제어는 일본인을 초월하였다. 대만 민정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은 인력과 적은 경비를 가진 중국 관료는 이렇게 큰 경제왕국의 관리를 일본인 관료만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새로운 경제적 통제 는 보편적 탐욕현상을 조성했고, 거의 모든 상업적 교역에 관료를 파견하여 감독하게 되었다. 그런 관료들은 정식 수입 외에 또 다른 수입을 생각했다. 어떤 관료는 그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그들의 특별한 고객이 된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¹⁰⁾

9) 가토 후미요시, 안소영 역, 『대일본제국붕괴』, 바오출판사, 2010, 127-139쪽.

10) 一九四六年底, 陳儀政府對臺灣經濟活動的控制甚至超過日本人, 然而中國官員又無法像日本人一樣, 把這個龐大的經濟王國管理得公正而有效率, 因為他們既少人手, 又少經費, 對本地的民情又不了解. 由於這些原因, 新的經濟控制釀成了普遍的貪污現象, 差不多所有商業性的交易都需要某類的官員到場監督, 那些官員忍不住就想再正規收費外再超收一點, 另一些官員會施點小惠給那些送他們禮物或他們有什麼特權的顧客. (賴澤涵, 馬若孟, 魏蓁, 『悲劇性的開端——臺

그 결과 광복 초기 臺灣인들은 사회 불안정·물가파동·통화팽창·풍기문란 등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겪었고, 조국의 품에 안겼다는 기쁨이 점차 절망으로 변했으며, 그러한 현상이 악화된 결과 “2·28”사건이 발생하였다. 대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중화정통주의를 완고히 고수함으로써 대만인의 기용을 철저히 배제한 국민당 정부의 정책이 주된 원인이었다. 결국 대만 내에서 外省인과 本省人間 갈등의 씨앗이 되어 대만사회의 고질적이면서도 민감한 사회문제로 발전했다. 중국에서는 대만인으로 배척당하는 모순 속에서 중국과 대만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정체성의 부재가 나타났다.

3) 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

대만 일제강점기 여성의 지위는 부계사회 중 존재하는 성별 차별과 자본주의 계급의 압박 및 식민주의가 가져온 종족 간의 속박 등에 따라 낮게 차등받았다.

許俊雅는 일제강점기 여성은 착취의 환경에 노출되고 남성우월주의 사회 가치관에 휩싸여 여성의 지위는 날로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일제강점기의 대만은 남아선호사상이 극명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중국은 전통적 남성우주의 사회로 여성에서 삼종사덕을 요구함으로써 여성에게 학업을 장려하지 않아 대다수의 여성은 무식하고 우매하여 자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무시를 당하였다. 두 번째로 갑오전쟁 후 국토가 함락되어 일본식의 “남성우월주의”가 대만을 휩쓸어 대만 남성의 관념에 영향을 주었다.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일제강점기 50년간 대만 여성은 압박면·속박면·지위면·형상면에 있어 이전 시기보다 더욱 비천한 대접을 받아 생활면이나 운명은 이전시기보다 더욱 처참했다.¹¹⁾

灣二二八事變』, 臺北: 時報文化, 1993, 147쪽)

11) 日據時期的臺灣, 重男輕女之風爲盛行, 考其緣由, 蓋有二端: 中國傳統以男人爲主的社會, 以三從四德要求女子, 以無才無學獎勵女子, 使其多數的女子因無知無學而愚昧庸弱, 不能自立,

楊翠는 『日據時期臺灣婦女解放運動』에서 일제강점기 대만여성은 “성별 · 계급 및 종족”으로 차별을 받았으며, 노동생산에 있어서는 “夫權 · 資本家 · 植民者”라는 3가지 압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¹²⁾ 일제강점기 대만여성은 이전시기보다 더욱 구속된 언행 및 태도로 지내야만 했으며, 그 처지는 더욱 열악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洪郁如是 1920년대 전후 대만에 새로운 신여성이 등장했고, 그녀들은 주로 高等女學校 졸업생으로 예전부터 내려온 纏足의 구습을 타파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추진한 신식 교육을 받았으며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서도 새로운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¹³⁾ 1920년대부터 대만에서는 이미 신여성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미 자유연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1945년 대만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후, 전쟁에서 패배한 군인들이 남하하면서 가정생활은 시댁과의 연결성이 줄어들고, 가사노동분담 측면에서 남성의 역할이 점점 커졌다. 이전의 가부장적인 남성위주의 문화도 차츰 쇠퇴해져 갔다. 일제강점기는 대만의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일제강점기 초기 여성의 취학률이 7.36%에서 일제강점기 후기 여성의 취학률이 60.94%로 대폭 상승¹⁴⁾됨에 따라 여성의 지위는 그동안 남성의 부속 지위에서 벗어나 점차 자주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그동안 여성들이 하고 있었던 농사나 집안 일 같은 전통적인 일에서 벗

爲男子所輕視，此其一。甲午戰爭之後，國土淪陷，日本式的“大男人主義”又跟隨着東瀛的船堅砲利橫行臺灣，影響了臺灣男子的觀念。此其二。這兩項因素相益相乘，使得日據時期五十年間，臺灣女子遭受重重壓迫、束縛、地位、形象比以往更卑下；生活、命運比以往更悽慘。”(許俊雅, 『日據時期臺灣小說研究』, 臺北: 文史哲出版社, 1999, 301-302쪽)

12) 楊翠, 「日據時期臺灣婦女解放運動 -- 『臺灣日報』爲分析場域(1920~1932)」, 臺北: 時報文化出版社企業有限公司, 1993, 21쪽.

13) 洪郁如, 『近代臺灣女性史 -- 日本的植民統治と‘新女性’의誕生』, 東京: 勤草書房, 2001, 33쪽.

14) 李又寧, 張玉法編, 『中國婦女史日論文集』第二輯, 臺北: 臺灣商務印書館股份有限公司, 1988, 371쪽.

어나 전문직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변혁은 여성으로 하여금 여성에게 주어진 전통문화와 사회제도 등의 제약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갖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일제강점기 식민체제에 대한 반대 운동을 실천하게 하였다.

1946년에는 “여성 할당제”를 헌법에 명시하였고¹⁵⁾, 이의 시행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함께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하였다. 1980년대엔 여성권의 및 제도개혁을 민간 여성단체들이 추진하였고, 1987년 계엄 해제 후, 1990년대부터 여성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양성 고용평등법”이 2002년 공포되어 실시되면서 대만 사회의 가부장제가 완화되는데 일정한 공헌을 하였다.¹⁶⁾

3. 작품속의 여성형상 분석

대만의 여성은 봉건적인 전통사상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아 왔으나,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일본이 추진한 신식 교육을 받으면서 차츰 자주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다. 吳濁流의 소설에서도 시대가 변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고수하며 생활하는 전통적인 여인형상이 존재한 반면, 이를 극복하고 자주적인 삶을 영유하고자 했던 반전통적인 여인형상이 출현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여인형상과 이에 상반되는 반전통적인 여인형상이 吳濁流의 소설 속에서 어떻게 그려졌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전자는 「水月」 중의 蘭英, 「先生媽」 중의 先生媽, 『亞細亞의孤兒』 중의 阿茶가 해당되고, 후자는 「泥沼中的金鯉魚」 중의 月桂, 『糖仔仔』 중의 月

15) 黃長玲, 「差異政治의形成:1946年婦女保障名額制定의歷史過程」, 『政治科學論叢』第52期, 2012, 33쪽.

16) 呂玉瑕, 「臺灣民衆性別角色態度的差變遷 : 1991~2001」, 『臺灣社會學刊』第48期, 2011, 55-57쪽.

英, 「波茨坦科長」중의 玉蘭, 『亞細亞의孤兒』중의 淑春이 해당된다.

1) 전통적 여성형상

「水月」은 1936년 창작된 단편소설이다. 주인공 仁吉은 학업 중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았으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본인과 대만 인간의 차별대우를 자각한다. 仁吉은 더 나은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 가정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의 아내 蘭英에게 일본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한다. 이에 蘭英은 타협할 수 없는 현실에 다른 방법이 없이 눈물을 흘릴 뿐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여보, 결혼한 이후 가지고 있던 몽상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았구려? 지금 큰 애 阿堅이 올해 6학년이고, 곧 중학에 가요. 아직까지 동경에 유학 가려는 몽상을 가지고 있으니, 생각해봐요, 애들과 당신 학비를 ……”
그녀의 말끝은 점점 흐려져만 갔다. 무의식 속에 눈물이 흘러내렸다.¹⁷⁾

사실 仁吉의 아내 蘭英은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집안 일, 아이들 양육, 동물 사육 등 모든 일을 한 마디 불평도 없이 처리하는 대만의 전통적 사상을 가진 부녀자이다. 그녀의 하루 일과를 작품 속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녀는 한 마디 원망의 말도 없이 노동에 종사한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를 돌보며 돼지, 닭, 오리에게 밥을 준 후 도시락을 가지고 밭에 가서 일한다. 그래서 낮에는 仁吉과 만날 시간이 없었다.¹⁸⁾

17) “我的先生, 你結婚以來抱著的美夢還沒有醒嗎? 你想, 現在大兒子阿堅今年唸六年級, 不久就要上中學, 你還在夢想去東京留學. 你想, 你的孩子, 你自己的學費 ……” 她的聲尾漸漸低下, 不知不覺地淚珠直流。(彭瑞金編, 「水月」, 『吳濁流集』, 臺北: 前衛, 1991, 110쪽)

18) 她從來沒有說過一句抱怨的話, 只是任勞任怨. 每晨四點就起來燒飯, 照顧孩子, 餵豬, 飼雞, 然後帶了便當下田做工, 所以, 白天和仁吉很少見面。(彭瑞金編, 위의 책, 114쪽)

이뿐만이 아니라 오후엔 밭일을 하고, 집에 돌아온 후엔 밤 11시, 12시까지 모자를 짜고 비로소 휴식을 취한다. 吳濁流는 사실적 수법으로 이러한 蘭英의 고단한 모습을 “건조한 모발, 앙상한 얼굴, 튀어나온 광대뼈, 창백한 안색, 함몰된 눈동자, 눈가의 많은 주름, 화장을 해보지 않은 얼굴, 찾아볼 수 없는 혈색”¹⁹⁾이라 묘사함으로써, 가혹한 현실의 생활고에 자기주장을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묵묵히 비참하게 살아가는 대만 전통 여성의 형상을 대변해 주고 있다. 彭瑞金은 이러한 蘭英의 모습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은 머릿속에 몽상으로 가득 차 삼시 세끼 먹기도 어려운데 해외 유학을 생각하는 남편과는 상대적으로, 행동으로 소리 없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蘭英의 모습은 오히려 독립적이고 존엄하다.²⁰⁾

작가는 현실 생활의 절박함을 알지 못하고 환상만을 추구하는 남편 仁吉의 무책임성을 고발은 물론 반대로 전통적 여성의 강인함을 잘 묘사하였다. 蘭英은 한 남자의 아내로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며 묵묵히 일하는 전통적인 여인형상이다.

「先生媽」는 1944년 창작된 단편소설이다. 통상적으로 先生은 의사를, 先生媽는 의사의 어머니를 지칭한다. 吳濁流는 사실 先生媽를 통해 당시 대만사회를 풍자적으로 비판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대만의식을 버리고 외래 일본의 것을 맹신하려는 의사인 자식을 야단친다고 하여 罵先生이라고도 한다. 작품속 주인공 錢新發은 일제강점기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추후 의사가 된다. 그는 富의 추구를 위해, 일제 皇民化運動政策에 순응하며 일본방식의 삶을 살고자 하나, 그의 어머니인 先生媽는 臺灣의 언어와 전통습관을 고수하고자 하는 臺灣의 평범한 전통적인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일본제국주의 황민화운동

19) 瘦削的臉孔, 顴骨高聳, 臉色青黃, 眼珠陷入很深, 眼角的皺紋重重。仁吉愈看愈怕, 未經打扮的臉孔, 全無血色。(彭瑞金編, 위의 책, 13-14쪽)

20) 相對於滿腦子夢想, 三餐溫飯都有困難卻夢想出國留學的丈夫, 蘭英只有行動, 沒有聲音, 她的辛勤、勞動卻是獨立尊嚴的。(彭瑞金, 『臺灣文學探索』, 高雄: 派色文學, 1995, 193쪽)

의 일환으로 대만의 언어습관과 사회습관을 바꾸기를 원하는 아들은 줄곧 어머니와 갈등과 대립을 야기한다. 吳濁流는 대비와 풍자의 방법으로 모자간의 갈등과 대립을 묘사함으로써, 일제강점기 황민화 정책에 순응하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번은 아들인 錢新發가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가족들은 물론 어머니까지도 기노모를 입기를 희망하지만, 先生媽는 전통적 유교주의 정신과 위배된다며 이를 거절을 한다.

그는 또 어머니가 ‘기노모’를 입기를 희망하였으나, 선생의 어머니는 입는 것을 원치 않아 어쩔 수 없이 대만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金井新助는 마음속으로 유감이었으나 말을 할 수 없어 화를 삭일 수밖에 없었다. 선생 어머니는 사진을 찍고 난 후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당시 준비된 기노모를 가위로 모두 잘라버렸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선생의 어머니가 노망이 난 줄 알고 매우 놀랐다. “이러한 물건을 남겨놓으면 내가 죽었을 때 내게 입혀 줄 수 있다, 만약 이런 옷을 입으면 어떻게 조상의 얼굴을 볼 수 있겠나.”²¹⁾

先生媽가 죽자 그녀의 아들 錢新發는 대만 전통식이 아닌 신식으로 장례를 치렀고, 先生媽를 추도하는 이는 거지를 제외하곤 아무도 없었다. 장례식 마지막 날 거지는 멀리서 先生媽의 관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관이 나가는 날 그는 가까이 설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뒤에서 멀리 의사의 어머니의 시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이후 매일 15일만 되면 그 거지는 향과 紙錢을 가져와 의사 어머니의 앞에서 태웠다. 향을 피우면서 향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쓸쓸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 의사의 어머니. 당신도 나와 같군요.²²⁾

21) 他又想要母親穿‘和服’, 奈何先生媽始終不肯穿, 只好仍然穿了臺灣服拍照。金井新助心中存了玉石同架的遺憾, 但他不敢說出來, 只得自惱自氣著。然而先生媽拍照後, 不知何故, 將當時準備好的和服, 用菜刀亂砍斷了。傍人嚇得大驚, 以為先生媽一定是發了狂了。“留著這樣的東書, 我死的時候, 恐怕有人給我穿上了, 穿上這樣的東西, 我也沒有面子去見祖宗。”(彭瑞金編, 「先生媽」, 『吳濁流集』, 臺北: 前衛, 1971, 28쪽)

吳濁流는 작품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 영향 아래에 일등 국민을 추구하고 있는 아들 錢新發와 이등 국민이지만 대만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先生媽간의 상호 이견 충돌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황민화정책에 대해 대비와 풍자의 방식으로 대만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대립과 충돌을 전개하였다. 소설의 마지막에 거지가 先生媽에게 “先生媽, 你也和我一樣。(의사의 어머니. 당신도 나와 같은요.)”라 함으로써 일등 국민이 아닌 이등 국민으로서 대만의 전통적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였다.

吳濁流의 작품 속에 비교적 전통적인 여성 형상을 잘 그려낸 작품은 『亞細亞의孤兒』이다. 阿茶는 『亞細亞의孤兒』속 주인공 胡太明의 엄마로 胡太明의 아버지인 胡文卿과 11세에 결혼을 한 민며느리이다. 작품에서 그녀가 胡文卿가 결혼하고 사는 삶의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阿茶는 민며느리로 胡家에 올 때 11살이었다. 그때 胡家의 집은 표면상은 명문 귀족이었으나 실제로는 가난뱅이와 같았다. 토지의 수입은 있었으나 이자 내기도 부족했다. 阿茶는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거나 사탕수수 밭에서 사탕수수 잎을 벗기는 등의 일을 해야만 했고, 16세에 비로소 결혼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벼알을 말리거나 뽕감을 주워야만 했다. 그 후 胡文卿의 의술이 발전하고 땅값이 올라 6, 7년 만에 빚을 다 갚았다. 일반인들은 胡家의 부흥이 阿茶의 복이라 여겼다. 阿茶가 결혼한 지 20여 년 동안 남편과 함께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고, 극장도 한 번도 못 봤다. 阿茶 역시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하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잠에서 일어나면 또 일을 했다.²³⁾

22) 出喪當日, 他不敢近前, 在後邊遙望先生媽的靈柩啼哭。從此以後, 每月十五日老乞丐一定辦香紙, 到先生媽的前燒香。燒了香, 老乞丐看到香煙繚繞, 不覺淒然下淚, 嘆一口氣說: 呀! 先生媽, 你也和我一樣。(彭瑞金編, 위의 책, 36쪽)

23) 阿茶做養媳婦到胡家來時是十一歲, 當時胡家表面上雖是望族, 實際上和貧窮人一樣。雖有土地的收入, 可是繳利息還不夠, 阿茶須要出去撿田裡的落穗, 或是到蔗田裡剝蔗葉等, 到了十六歲就結婚, 可是照樣還要撿柴草或幫人晒穀子。其後胡文卿的醫務發展了, 土地也漲了價, 僅僅六、七年中, 債也還清了。一般人認為胡家的再興是靠阿茶的福氣的。阿茶結婚以來二十幾年, 沒有跟丈夫一同回過娘家, 也沒有一同上街看過戲。阿茶也沒有感到什麼幸福不幸福的事。每天很早就起來工作, 疲倦了就睡一下, 睡過了又起來工作。(吳濁流, 『亞細亞의孤兒』, 臺北:

그녀의 삶은 사람의 삶이 아닌 일만 하는 동물적인 삶이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그녀는 전형적인 온유한 엄마의 상으로 표현되었다. 자신의 의견 및 생각을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타인 옆에 있으면서 타인의 의견을 듣고, 근검 절약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의 앞날에만 걱정하는 전통적 여인의 형상으로 묘사되었다. 특히 이러한 阿茶의 희생과 봉사로 胡家는 마을에서 흥성한 집으로 소문났고, 이것은 모두 阿茶의 공으로 여겨졌다. 그런데도 阿茶는 남편이 첩을 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항도 없이 이를 따라야만 했다. 이러한 그녀의 일생은 그녀의 권리를 착취당한 채 남성의 부속품으로 현모양처의 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다음의 내용에서 잘 나타나 있다.

주위의 식구 - 그 중 엄마는 - 그의 이러한 퇴폐하고 처량한 정신에 대해 매우 걱정을 한다. 그가 방에서 홀로 깊게 생각을 할 때 엄마는 항상 조심스럽게 위로가 가득 차고도 자애로운 미로로 그의 이름을 가볍게 부른다.²⁴⁾

자식에 대한 이러한 阿茶의 언행은 주인공 胡太明의 머릿속에 자애로운 어머니로 기억되어 있다. 阿茶는 작품 속에서 자애로운 모습의 어머니이며 전통을 고수하는 여인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일제강점기 식민주의 정책은 그녀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 사고 방식과 충돌을 일으킨다. 한 번은 阿茶의 아들인 胡太明이 전통의 상징인 변발을 자르려고 하자, 이에 크게 상심을 하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太明이 스스로 변발을 자르려한다. 그는 변발을 자른 이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절망적으로 흔들리는 목소리로 울면서 말 하길; “太明

草根出版社, 1995, 35-36쪽)

24) 周圍的親人--尤其是母親--對於他這種頹廢沮喪的精神, 都異常擔心。每當他獨自悶在房中沈思的時候, 母親總是小心異地帶着充滿慰藉、慈愛的微笑, 輕輕地喊著他的名字。(吳濁流, 위의 책, 33쪽)

아 년 죽어서도 조상을 볼 수가 없겠구나 ... ”²⁵⁾

阿茶의 큰 아들 胡志剛이 일본의 입장에 서서 어머니가 양식을 몰래 숨기는 일을 꾸짖자, 그녀는 마음이 상해 눈물을 흘리며 큰 아들 志剛에게 다음과 같이 욕을 한다.

“죽을 놈아. 일본 오줌을 퍼 먹어라.” 阿茶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그녀의 자식에게 “죽을 놈아”라고 심하게 욕을 한 마디 하였다.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은 처음 이었다.²⁶⁾

작자는 阿茶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중국 전통사상 고수라는 사고가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고유한 것으로, 평소에 자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던 어머니가 자식에게 절규하게 만드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작가가 전통적 여성상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풍자한 것이다. 阿茶는 그동안 전통에 갇혀 살아온 봉건적인 여인으로,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었던 자식에게도 배신을 당한 여인이다. 그녀는 희생과 착취를 당한 일생을 돌아보면서, 삶에 대한 어떠한 의미도 찾지 못한다. 집에서 버림받은 阿茶는 집을 나와 별도로 살지만 그녀의 생활은 그녀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조금도 바뀌지 않은 채 여전히 일만하는 동물적인 삶을 산다. 작자는 그녀의 삶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太明的 엄마는 자신의 생활을 위해 집 근처에 야채를 심었다. 처음엔 재미가 있어 계속해서 새로운 땅을 개간하였고, 太明은 옆에서 그녀를 도왔다. 채소 이외에 또 삼십 여 그루의 바나나 묘목을 심었고, 바나나 묘목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²⁷⁾

25) 太明時自願剪髮的, 他剪髮以後第一次回到家裡, 母親絕望地用顫抖的聲音哭道: “太明! 這回你死了見不得先人了 …” (吳濁流, 위의 책, 37쪽)

26) “短命鬼! 吃日本屎的!” 阿茶眼淚汪汪地望着他的背影, 狠狠地罵了一句, 她罵自己的兒子是“短命鬼”, 這還是第一次。(吳濁流, 위의 책, 259쪽)

27) 太明的母親(按: 即阿茶)爲了自謀生活, 準備在自家附近種植蔬菜, 開始以後, 覺得很有興趣, 於

이상 「水月」중의 蘭英, 「先生媽」중의 先生媽, 『亞細亞的孤兒』중의 阿茶에서 보듯이, 吳濁流는 대만의 전통적 여성형상을 시대가 변화했지만 가부장적인 체제하에서 침묵으로 대응하며 전통적인 관습을 맹목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으로 그려냈다. 작품속의 여성은 자신의 요구와 이상은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집안 식구들의 안이를 우선시하는 삶을 산다.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고 자각 없이 억울하게 삶을 유지하는 전통적 여성형상을 그려내고 있다.

2) 반전통적 여성형상

吳濁流 소설 속에 나타난 반전통적 여성형상으로는 「泥沼中的金鯉魚」중의 月桂, 『糖仔仔』중의 月英, 『波茲坦科長』중의 玉蘭, 『亞細亞的孤兒』중의 淑春 등의 인물이 해당된다.

우선 「泥沼中的金鯉魚」은 1936년 창작된 작품으로, 주인공 月桂는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 여성으로 일반적인 전통 여성과는 달랐다. 그녀는 여성의 자존감을 중요시 않는 불합리한 봉건적인 남성 우월주의에 대하여 비판하였고, 여성의 혼인자주권과 매매혼례를 반대함으로써 대만의 여권운동을 제창한다. 당시 사회는 통념상 안정적 생활을 위해 남자가 부유하다면 여자의 자존감은 중요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다처제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시대였다. 이러한 세태는 작품 속에 잘 드러나 있다.

月桂는 비록 100% 미인은 아니지만 날 때부터 피부가 희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학자로 어려서부터 훈육을 받아 우아하고 똑똑했다. 꽃다운 나이에 마을에서 모두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부자들이 연이어 매파를 띄웠다. ... 돈 있는 남자라면 일부다처를 할 수 있는 시기이다. 사회 풍조는 첩으로서 신분을 대변하며, 첩의 숫자에 따라 사교계의 경쟁

是又繼續開墾一些新地，大明也從旁協助她。除蔬菜以外，又種了三十幾枝香蕉苗，香蕉苗在新墾的土地上，成長得特別快。(吳濁流, 위의 책, 249쪽)

을 추구하였다.²⁸⁾

月桂는 혼인을 개인의 의견 없이 부모가 정해주는 것으로 여기는 당시의 세태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月桂 친구는 당시 혼인 및 매매혼례에 대한 사회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K아가씨는 말할 수 없는 비밀 고층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保正이다. 그는 원래 K아가씨 집안의 지주이다. 그는 그녀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돈을 주었다. 그녀가 졸업 할 즈음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비를 받으려고 하였다. 학비를 상환하지 못하면 세진을 올려줘야 했다. K아가씨가 그에게 시집을 가면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K아가씨는 처음엔 울고불고 시집을 안 간다고 하였으나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갈 수밖에 없었다.²⁹⁾

작품 속의 내용에서 보면 月桂 역시 지주로부터 학비를 빌려 학교에 다녔고, 졸업하게 되자 학비 상황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에 月桂의 어머니와 삼촌은 거액의 지참금을 받고 부자의 첩으로 月桂를 팔려고 하자, 月桂는 臺北로 도망쳐 여성의 혼인자주권과 매매혼례의 반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한다. 작품 속에서 당시 사회적 상황에 대한 그녀의 저항 의지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의지가 없으니.... 모두 눈물을 속으로 삼킨다. 그러면 영원히 남성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남성의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 나는

28) 月桂生就嫩白美麗, 雖還不能說是十全美人, 但因她父親是個儒生, 從小受他薰陶, 長得又斯文又聰明. 這時正當二八年華, 在村裏成爲大家羨慕的焦點, 所以有錢人家託媒說親的接連而來. … 事實上男人只要有錢就可以擁有三妻五妾. 而且社會風氣又以姨太太表示身分, 華麗的社交界也以姨太太的多少來競相驕傲.” (吳濁流, 「泥沼中的金鯉魚」, 『吳濁流文學讀本』, 苗栗: 西湖鄉公所, 2000, 9쪽)

29) K小姐是有很多說不出的秘密苦衷的, 她的丈夫是做保正的, 他原來是K小姐家的地主, 在女學校時是他拿錢出來給K小姐讀書的. 等她一畢業就用種種的手段, 要討回學費, 否則要增加地租, 不過只要K小姐嫁給他, 他就可以不追索那些錢. K小姐最初也哭着鬧着不嫁他, 後來還是爲著一家的生活不得不嫁他了. (吳濁流, 위의 책, 15쪽)

단연코 반대한다. 어떤 일이 있든지 투항하면 안 된다. 그런지 아닌지 말해보라. 기다려봐라! 이기적인 삼촌.”³⁰⁾

그녀는 臺北으로 도망칠 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다. 세상의 인심은 그녀가 생각한 것처럼 쉽지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도망쳐온 月桂는 그녀에게 임시직을 제공한 사장의 함정에 빠져 정조를 잃게 된다. 月桂는 사장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하고 복수를 하였고, 추후 臺灣사회에 여성운동을 할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그녀의 심정은 다음과 같다.

자살? 아니 복수, 복수만이 살 길이야. 그녀는 기숙사에 앉아 다시 복수할 방법을 생각했다. 오랜 생각 끝에 그녀는 갑자기 모든 사회가 수렁과 같이 더러운 물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부도덕한 이가 어찌 사장 한 사람뿐이겠는가. 모두가 똑같다. 만일 복수를 할 때 이 나쁜 놈 하나에게만 복수하려면 그것은 개인적인 원한일 뿐이고, 이러한 보복은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복수를 하려면 통쾌하게 해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 마음속으로 스스로 자문자답했다. “괴롭힘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경시를 당하는 여자들을 위해 여권운동을 제창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야.” 그녀는 결국 문화협회에 참가하여 선각 여성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심하였다.³¹⁾

吳濁流는 「泥沼中的金鯉魚」 속의 주인공 月桂의 여성형상을 통해서 그동안 남성에게 착취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당시 대만 여성을 묘사했다. 그녀들은 자각을 통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여성으로서 사회적 해방을 할 수 있

30) “那樣沒有志氣... 大家都把眼淚往肚裏吞, 那就永久無法由男人手裏解放出來呀。對男人的胡來亂做我要斷然反抗, 不論有什麼事決不投降, 你說應該不應該。等着瞧吧! 我那自私的叔父。” (吳濁流, 위의 책, 71-72쪽)

31) 自殺, 不, 報仇, 只有報仇這條路可走。可是她回到公寓坐定, 再繼續想著復讐的方法, 想來想去, 忽然發現整個社會像泥沼一樣, 污波濁浪滾滾不息, 實在叫人吃不消。像這樣不道德的社長豈止一人, 千千萬萬比比皆是, 要報仇的話, 單單報復這個壞傢伙, 祇不過是私仇而已, 這樣報仇法不算本事。要報仇也要報復得痛快, 才有目的。... 內心自問自答著: “我應該獻身為被人欺負, 被人污辱, 被人歧視的婦女們提唱女權運動, 才有價值。” 她決心參加文化協會和先覺女士共同奮鬥。” (吳濁流, 위의 책, 79쪽)

다고 생각하며, 여성 인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月桂는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 여성으로 불합리한 봉건적인 남성 우월주의를 비판하고, 여성의 혼인자 주권을 주장하며,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해방을 주장한 반동적인 여인형상이다.

『糖扞仔』는 1945년 창작된 작품이다. 작품 속의 糖扞仔는 일본제국주의에 아첨하는 친일파로 국수 가게 딸 月英의 학비를 대신 빌려주고 추후 月英을 첩으로 삼으려한다. 학비를 빌려 학교에 보낸 月英의 어머니는 月英이 졸업하자 학비를 돌려줄 만 한 돈이 없고, 糖扞仔의 거액 결혼 지참금을 생각해 月英에게 糖扞仔의 첩이 될 것을 종용한다. 이를 거부한 月英은 胡太明을 만나 사랑을 하고 그와 결혼을 하고자 한다. 月英은 집으로부터의 해방은 胡太明과 결혼뿐 이라 생각한다. 胡太明은 月英과 결혼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갖은 돈은 없었고 돈을 벌려고 해도 벌수가 없었다. 月英의 어머니는 胡太明이 마음이 들지 않았고, 딸 月英과의 결혼을 반대한다. 月英의 어머니는 딸 月英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중요치 않고, 단지 부유한 사람과 결혼을 하면 좋겠다고만 생각한다. 그녀의 마음은 다음과 같다.

糖扞仔는 保正이고 協議 會員이며 壯丁團 團長이다. 젊은 여자 모두들 존경한다. 친정 갈 땐 반드시 차를 대절한다. 장사 하려면 糖扞仔에 의지해야 반드시 잘 될 수 있다. 月英의 어머니는 糖扞仔가 더욱더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어찌 되었던 간에 딸아이를 다른 이에게 시집보낼 수 없다.³²⁾

그래서 月英의 어머니는 糖扞仔와 모의해 月英에게 약을 먹여 糖扞仔와 하룻밤을 보내게 한다. 月英은 그 수치심을 참지 못하고 유서를 쓰고 투신자살한다. 吳濁流는 月英의 유서를 통해 당시 학대받는 여성의 심정을 사실적으로

32) 糖扞仔는 保正, 又是協議會員, 壯丁團團長, 小頭家娘, 人人尊敬。歸寧的時候, 一定也是坐小包車來的。自己的生意, 也因有糖扞仔做靠山, 一定更興隆。這樣想起來, 月英的母親更覺得糖扞仔有用, 不論怎麼樣也不能把女兒嫁給別人了。”(吳濁流, 「糖扞仔」, 『吳濁流創作集-功狗』, 臺北: 遠景, 1977, 93쪽)

묘사하였다.

울어서 통통 부은 얼굴을 닦으며 거울을 보았다. 너는 거울 속에서 미소를 짓지만, 아름다운 눈동자 안에 나의 더러움을 비춘다. 아름다운 세계는 더러움이 없고, 더러운 것은 길이 없다. 사랑은 신의 농담인가? 사랑은 사랑하는 바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다. 사랑은 힘 있는 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강함은 약함을 제어하는 도구이다. 하늘이시여 저를 용서해주세요. 이 더러움도 용서해주세요. 사랑은 강한 정직 그리고 순결이라고 증명거린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약하다. 다음 생에는 여인으로, 학대받는 여인으로 태어나면 남성보다 더 강한 여성이 되길 바란다.³³⁾

吳濁流는 『糖扦仔』에서 여성주권은 본인에게 있는데, 月英은 胡太明과 결혼하는 것만이 정략결혼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머니와 糖扦仔에 모략에 의해 정조를 잃게 되자 자살로써 현실에 항의하고 있다. 이는 「泥沼中的金鯉魚」속 月桂와는 또 다른 반전통 여인상을 묘사하고 있다.

『波茲坦科長』은 1948년 창작된 작품이다. 포츠담 선언 후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고, 대만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벗어났다. 해방된 대만은 국공내전에서 실패한 국민당에 귀속되었고, 국민당이 대만을 집정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신정권이 안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국민당 정부가 조사위원회에서 일제재산을 청산하는 과정 중 사회엔 많은 투기 세력이 흥성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 주인공 玉蘭은 대만이 일본으로부터 중국의 국민당에 귀속된 것에 대해 무한한 동경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玉蘭의 심경은 다음과 같다.

조국을 동경하는 정서는 무의식중에 그녀를 사로잡았다. 마음속에 호감
이 생겨났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소리 없이 발생하는 사모의 정서가 그녀

33) 擦著哭腫的臉看著鏡, 你在鏡裏微笑, 美麗的眼眸裡映出我的污穢, 愛的世界沒有污穢, 污穢了的沒有路, 愛是神的戲言嗎? 愛時為著所愛的, 不, 愛是為著強有力者強制弱者的工具, 天, 請赦免我, 赦免這污穢, 愛在喃喃地說: 堅強正直而純潔. 可是我太弱了, 願下次再生為女人, 為被虐待的女性, 變成一個較男人更強的女人。(吳濁流, 위의 책, 81-82쪽)

도 이해할 수 없이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 막연한 일종의 정서.³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玉蘭은 중국 본토 출신인 范漢智에게 환상과 동경을 갖고 결혼을 한다. 吳濁流는 중국 본토인에 대한 대만인의 맹목적인 동경을 결혼이라는 매개체로 결부지었다. 대만인은 일본 제국주의로 부터 해방된 후 중국 본토도 이제 같은 조국이라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玉蘭은 중국 본토 출신인 范漢智와의 결혼생활을 통해서 차츰 范漢智의 불법적인 활동 보고 중국 본토에 대한 동경이 실망으로 바뀐다. 吳濁流는 范漢智에 대한 玉蘭의 이런 심경 변화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조국에 대한 동경으로 말하자면, 外省人에 대한 친밀도는 나날이 깊어져야 했으나 사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렀다. 불만의 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져 도처에 대립되는 감정이 증만했다.³⁵⁾

玉蘭과 范漢智의 결혼생활에서 대만인과 중국 본토인 사이의 마찰은 시작되었고, 중국 본토인을 바라보는 대만인의 동경은 단지 아름다운 환영임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자아의식의 반동으로써 자주여성의 각성이다. 여성으로서의 이러한 반성과 각성은 작품 속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있다.

玉蘭이 간호사였을 때 일찍이 일본 의사가 그녀에게 청혼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 또한 그에게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젊고 잘 생겼으며 교양이 있었고, 또한 의학박사로 후에 대학교수가 될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그녀의 애정은 자신의 잠재의식속의 어떤 것들에 의해 방해받고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지금 생

34) 因對祖國憧憬的情緒無意識中搖撼著她，由心中發生好感，這就是她心中深處發生的無聲息的思慕凝結的一個形態，是一種使她不能了解的 ... 而且茫然的一種情愫。(彭瑞金編，「波茨坦科長」，『吳濁流集』，臺北：前衛出版社，1991，144쪽)

35) 照理對祖國的憧憬，對外省人的親愛應該是日漸加深的，可是事實卻正好向相反的方向走！不滿的聲息日見囂張，到處都充滿著對立的感情。(彭瑞金編，위의 책，182쪽)

각해보면 그 남자는 현재의 남편과 비교해 볼 때 절대 부족하지 않았고 어쩌면 훨씬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니 왜 자신이 현재의 남편을 사모하게 된 것인지 그녀 자신도 정말 모를 일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광복 당시의 감정이 생각났다. 조국! 아. 그것은 자신의 부모보다 더욱 친근한 말이었다. 그녀는 그 감정이 굳어져 남편에 대한 동경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아! 결국 나 역시....³⁶⁾

일제강점기 臺灣인의 중국 대륙에 대한 동경이 바로 중국 본토인에 대한 동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본토인이 臺灣에서 부정부패, 경제적 박탈, 물가폭등 등 사회불안 및 착취 등을 야기함으로써 대만인은 광복 후 동경의 대상이었던 조국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다. 吳濁流는 작품 끝에서 대만에 대한 착취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이 하였으나, 광복 후에는 조국의 대표하는 중국 본토인으로 자리바꿈됨으로써 조국에 대한 동경과 희망이 배신감과 환멸의 대상으로 바뀌는 상황을 토로하였다. 특히, 吳濁流는 玉蘭의 심경 변화를 통해서 대만 해방 전후의 사회 풍조를 잘 풍자함으로써 대만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알 수 있다.

『亞細亞의孤兒』은 吳濁流가 1945년 창작한 장편소설이다. 주인공 胡太明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대만에서 직업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중국 본토로 가서 南京에서 교사로 부임한다. 중국 국적의 淑春을 만나 결혼을 한다. 사실 그녀는 그가 가르친 학생이었다. 그녀는 金陵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의 소개로 외교부에서 일을 하면서 새로운 소식과 많은 사람을 접하였고 정치운동에도 참여한다. 또한 그녀는 댄스·마작을 즐길 뿐 아니라 타인이 주는 선물을 받길 좋아하는 등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중국의 신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淑春의 성격은 개성과 주관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여인이다.

36) 她在做護士的時候，曾經有日本醫師向她求婚。他很愛她，她也不是對他沒有意，又年輕又漂亮又有教養，而且又是醫學博士，將來當大學教授是有希望的。但是不曉得怎麼她的愛情被自己潛意識的某一種東西阻碍著沒有發展。現在想起來那個男人較現在的丈夫決不會差，也許還優秀得多。然而....到這兒，爲甚麼自己會思慕現在的丈夫，她真是百思不解。她忽然想起光復當時的心情，祖國！唉。那是較自己父母還更親的話。她想出了是那個感情凝結起來成爲丈夫的憧憬。唉！自己到底也是.... (彭瑞金編, 위의 책, 186쪽)

南京에 차가 도착하자 그 소녀는 신발을 벗지 않은 채 가죽 의자에 서서 집간에 있는 짐을 내려놓았고, 의자에서 내려오자 가죽 의자 위에는 두 개의 작은 상해풍의 여성화 발자국이 있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이기적이었지만 그 작은 발자국을 본 太明은 그녀에게 어떤 책망을 할 수 없었다.³⁷⁾

胡太明은 신여성인 淑春에게 감정을 느끼고 주동적으로 구애를 청한다. 구애를 받은 淑春은 남녀교제에 대해 그녀만의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하의 淑春의 의견이다. 그녀는 결혼에 대해 일종의 그녀만의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의 방법이 필요했다. 그녀가 보기에 30명의 남자 친구가 있어야 하고, 그중에서 세 사람을 선택해 그들과 연애한 후, 한 사람을 선택해 결혼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생각은 신시대 여성의 기백이 있다고 하겠다. 반대로 말하면 그것은 일종의 허접한 공식화된 논조이다. 淑春은 거의 삼십 분 정도 자기의 이론을 거리낌 없이 말하고, 연이어 또 말 했다. 그런데 제 뜻을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방금 말한 것은 제가 선생님을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과 상관없는 일이에요.³⁸⁾

이후 胡太明과 淑春은 결혼을 하였고, 그 둘 사이에는 紫媛이라는 딸이 있었다. 중국 전통적인 사고방식인 胡太明은 淑春이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딸에 대한 모성애가 부족하고 가사 일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항상

37) 車到南京以後, 那少女連鞋子也不脫, 就站在皮椅上去拿棚架上的行李; 她下來以後皮椅上殘留着兩個纖小可愛的上海式女鞋的足印。她這種舉動雖然未免太自私, 但看了那個嬌嬌小玲瓏的足印, 太明却不忍去責備她。(吳濁流, 『亞細亞的孤兒』, 臺北: 草根出版社, 1995, 149쪽)

38) 以下是淑春的意見; 她說她對結婚抱着一種理想, 爲了實現這種理想, 必須先採取一種方法, 那就是據她看起來, 至少須有三十個男朋友, 從這三十個男朋友中, 選擇三人和他們戀愛, 然後再選擇一人作爲結婚的對象。她這種方法, 似乎頗有新時代女性的氣派; 可是反過來說, 那似乎又只是一種膚淺的公式化的論調。淑春幾乎花了三十分鐘的時間, 毫無顧忌地發達子器的理論, 然後她接著說; 不過, 請您別誤解我的意思, 剛纔所說的話, 跟我愛不愛老師是兩回事亞。”(吳濁流, 위의 책, 173쪽)

부족함을 느꼈다. 신여성인 淑春은 이러한 胡太明의 생각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노인과 같은 봉건적 생각뿐이네요?” 그녀는 太明의 말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말하였다. “나는 가정에 속박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결혼은 무슨 계약이 아니에요. 나는 결혼으로 인해 자유를 잃을 수는 없어요!”³⁹⁾

淑春은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강했지만,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그 결과 실천에 옮길 수가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淑春의 한계 상황에 대하여 胡太明은 다음과 같이 폄하한다.

사회에 유행하는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그녀는 하늘 높이 치켜세우고 숭선을 부르짖었으나, 그녀 자신은 실천한 적이 없었다.⁴⁰⁾

즉 반전통의 여성형상으로 신여성을 대표하는 淑春은 새로운 사회의 여성으로 살면서 신사조의 산물을 숭상하나,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실제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표리부동한 삶을 살았다. 胡太明과 결혼생활도 양자 사이의 문화적 배경과 생활방식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상적이지 못했고, 그 가운데서 서로 영원한 평행선을 달렸다. 훗날 胡太明은 신분 문제로 인해 체포된 감옥에 가게 되었고, 다행히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에 성공한 후 대만으로 돌아왔지만 이후 太明과 淑春은 단절되어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이 泥沼中的金鯉魚」중의 月桂, 『糖仔仔』중의 月英, 『波茲坦科長』중의 玉蘭, 『亞細亞의孤兒』중의 淑春은 모두 당시대의 반전통적인 신여성으로 자신의 처지와 불만에 대해 月季는 현실도피로, 月英은 투신자살

39) “你的頭腦怎麼像老頭亞一樣地封建呢?” 她對太明的話提出自己的意見說：“我不是願意受家庭束縛的，結婚並不是什麼契約的，我不能因結婚而失去自由啊!” (吳濁流, 위의 책, 177쪽)

40) 凡是社會上流行的新鮮玩意兒，她莫不高高地把它捧上天而率先倡導，但她自己卻從來不實踐。(吳濁流, 위의 책, 181쪽)

로, 玉蘭은 배신감으로, 淑春은 헤어짐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출하였다.

4. 나오는 말

吳濁流는 대만 광복 전후시기의 사실주의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크게 경제 체제 · 보갑제도(保甲制度) · 황민화 정책 · 경제약탈 · 사회생활 등 대만인에 대한 잔혹한 일제강점기의 식민생활을 담고 있고, 해방이후 광복한 대만에서 벌어지는 사회 동란 및 경제공황 등을 서술하고 있다. 필자는 양성평등, 여권운동 등 여성 관련 문제들에 대해 현대사회는 갈수록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 사회 전반에 관습이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앉아 있는 봉건적 · 계몽모니적 삶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일제강점기 전후의 대만 여성형상이 吳濁流의 소설 속에서 어떻게 그려졌는지 탐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본고에서 일제강점기 전후의 대만 여성형상을 전통적 여성형상과 반전통적 여성형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통적 여성형상으로 「水月」 중의 蘭英, 「先生媽」 중의 先生媽, 『亞細亞的孤兒』 중의 阿茶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水月」 중의 蘭英은 한 남자의 아내로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며 묵묵히 일하는 전통적인 여인형상이다. 작가는 현실 생활의 절박함을 알지 못하고 환상만을 추구하는 남편 仁吉의 무책임성을 고발은 물론 반대로 전통적 여성의 강인함을 잘 묘사하였다. 「先生媽」 중의 先生媽는 臺灣의 언어와 전통습관을 고수하고자 하는 臺灣의 평범한 전통적인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吳濁流는 대비와 풍자의 방법으로 모자간의 갈등과 대립을 묘사함으로써, 일제강점기 황민화 정책에 순응하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亞細亞的孤兒』 중의 阿茶는 전형적인 온유한 엄마의 상으로 표현되었다.

阿茶는 그동안 전통에 갇혀 살아온 봉건적인 여인으로,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었던 자식에게도 배신을 당한 여인이다. 그녀는 희생과 착취를 당한 일생을 돌아보면서, 삶에 대한 어떠한 의미도 찾지 못한다. 집에서 버림 받은 阿茶는 집을 나와 별도로 살지만 그녀의 생활은 그녀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조금도 바뀌지 않은 채 여전히 일만하는 동물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살아가는 일제강점기 대만 여성상에 대해 許俊雅는 『日據時期臺灣小說研究』에서 “이렇게 고생을 견디며 가정과 아이들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는 여성은 대만 전통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소설에서 이런 놀랄만한 각색을 묘사한다는 것은 장엄하기고 하고 또 고통의 한 떨기 꽃이라 할 수 있다.”⁴¹⁾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상의 蘭英, 先生媽, 阿茶은 대만의 전통적 여성형상으로 시대가 변화했지만 가부장적인 체제하에서 침묵으로 대응하며 전통적인 관습을 맹목적으로 유지한다. 작품속의 여성은 자신의 요구와 이상은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집안 식구들의 안이를 우선시하는 삶을 산다.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고 자각 없이 억울하게 삶을 유지하는 전통적 여성형상이다.

반전통적 여성형상으로 「泥沼中的金鯉魚」중의 月桂, 『糖仔仔』중의 月英, 「波茨坦科長」중의 玉蘭, 『亞細亞的孤兒』중의 淑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泥沼中的金鯉魚」중의 月桂는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 여성으로 불합리한 봉건적인 남성 우월주의를 비판하고, 여성의 혼인자주권을 주장하며,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해방을 주장한 반통적인 여인형상이다. 『糖仔仔』속 月英의 어머니는 딸 月英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중요치 않고, 단지 부유한 사람과 결혼을 하면 좋겠다고만 생각한다. 月英의 어머니는 糖仔仔와 모의 해 月英에게 약을 먹여 糖仔仔와 하룻밤을 보내게 한다. 月英은 그 수치심을 참지 못하고 유서를 쓰고 투신자살한다. 「波茨坦科長」중의 玉蘭은 중국 본

41) “這樣刻苦耐勞，爲家庭、爲孩子奉獻一生的女性在傳統臺灣社會中處處皆是，小說深刻描繪了這令人欽佩敬重的角色，那形象有如莊嚴卻又悲苦的一朵花。”(許俊雅, 『日據時期臺灣小說研究』, 臺北: 文史哲, 1995, 613쪽.)

토 출신인 范漢智에게 환상과 동경을 갖고 결혼을 한다. 그러나 결혼생활에서 대만인과 중국 본토인 사이의 마찰은 시작되었고, 중국 본토인을 바라보는 대만인의 동경은 단지 아름다운 환영임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자아의식의 반동으로써 자주여성의 각성이다. 『亞細亞的孤兒』 중의 淑春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중국의 신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淑春의 성격은 개성과 주관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여인이다. 이상과 같이 『泥沼中的金鯉魚』 중의 月桂, 『糖仔仔』 중의 月英, 『波茲坦科長』 중의 玉蘭, 『亞細亞的孤兒』 중의 淑春은 모두 당시대의 반전통적인 신여성으로 자신의 처지와 불만에 대해 月季는 현실도피로, 月英은 투신자살로, 玉蘭은 배신감으로, 淑春은 헤어짐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출하였다.

參考文獻

- 葉石濤, 「吳濁流論」, 『臺灣文藝』12期, 1966.
- 吳濁流, 「文學就是文學,不是工具」, 『臺灣文藝』11期, 1966.
- 鍾肇政, 『風雨憶故人』, 『亞細亞的孤兒』, 臺北: 遠行出版社, 1972.
- 吳濁流, 「對文學的一二管見」, 『臺灣文藝』46期, 1975.
- 張良澤編, 『吳濁流作品集』(1)-(6), 臺北: 遠行出版社, 1976.
- 吳濁流, 『吳濁流選集』, 臺北: 遠行出版社, 1977.
- 吳濁流, 『吳濁流選集自序』 臺北: 遠行 1977.
- 吳濁流, 「糖仔仔」, 『吳濁流創作集-功狗』, 臺北: 遠景, 1977.
- 吳濁流, 『無花果』, 臺北: 前衛出版社, 1988.
- 李又寧, 張玉法編, 『中國婦女史日論文集 第二輯』, 臺北: 臺灣商務印書館股份有限公司, 1988.
- 洪郁如, 『近代 臺灣女性史 - 日本の植民統治と‘新女性’の誕生』, 東京: 勤草書房, 1990.
- 彭瑞金編, 『吳濁流集』, 臺北: 前衛出版社, 1991.
- 楊翠, 『日據時期臺灣婦女解放運動 - 『臺灣日報』爲分析場域(1920~1932)』, 臺北: 時報文化出版社企業有限公司, 1993.
- 彭瑞金, 『臺灣文學探索』, 高雄: 派色文學, 1995.
- 吳濁流, 『亞細亞的孤兒』, 臺北: 草根出版社, 1995.
- 許俊雅, 『日據時期臺灣小說研究』, 臺北: 文史哲, 1995.
- 林瑞明, 『臺灣文學的吳歷史考察』, 臺北: 允晨文化, 1996.
- 吳濁流, 『臺灣連翹』, 臺北: 前衛出版社, 1991.
- 葉石濤, 『一個臺灣老作家的50年代』, 臺北: 前衛出版社, 1991.
- 許俊雅, 『日據時期臺灣小說研究』, 臺北: 文史哲出版社, 1999.
- 吳濁流, 「泥沼中的金鯉魚」, 『吳濁流文學讀本』, 苗栗: 西湖鄉公所, 2000.
- 藍博洲編, 『吳濁流的西湖歲月』, 苗栗: 西湖鄉公所, 2004.

- 葉石濤, 「論吳濁流『幕後的支配者』」, 『臺灣文藝』第9期, 臺灣文藝, 1965.
- 張良澤, 「不滅的詩魂-吳濁流作品研討座談會記錄」, 『臺灣文藝』58期, 臺北: 臺灣文藝, 1978.
- 鍾肇政, 『看! 吳濁流文學』, 臺灣文藝 77期, 1982.
- 呂玉瑕, 「臺灣民衆性別角色態度的差變遷: 1991~2001」, 『臺灣社會學刊』第48期, 2011.
- 黃長玲, 「差異政治的形成: 1946年婦女保障名額制定的歷史過程」, 『政治科學論叢』第52期, 2012.
- 俞載星, 李鎔泰, 「吳濁流 短篇小說 小考」, 『한중언어문화연구』 제44집, 사단법인 한국현대중국연구회, 2017.
- 유재성, 이용태, 「葉聖陶와 吳濁流 短篇小說속에 나타난 知識人 形象 小考」, 『중국어문학』 제78집, 영남중국어문학회, 2018.
- 양태근, 「葉石濤를 통해 본 강제된 문명으로서의 식민지 대만과 '대만문학」, 『중국현대문학』 제56집, 2011.
- 가토 후미요시, 안소영 역, 『대일본제국붕괴』, 바오출판사, 2010.

Abstract

A Study of woman figure on Wu Zhou Liu of short stories

You, Jaesung · Lee, Yongtae

Taiwanese women have been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of various factors, such as feudal traditions, but gained their independence by receiving new Japanese educatio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While the times have changed in the novels of Wu Zhou Liu, there has been a traditional woman figure who still lives with the traditional way of thinking, while an anti-traditional woman figure who tries to overcome it and live independently. In this paper, I analyzed how the traditional woman figure and the anti-traditional woman figure that were opposite were drawn in the novel of Wu Zhou Liu.

Belonging to the former is Lan Ying of <shuiyue>, Doctor Mother of <Doctor Mother>, A Cha of <Asian Orphans>, and the latter belong to Yue Gui of <Gold Carp in the Mud>, Yue Ying of <Tang Qian Zai>, Yue Lan of <Manager of Pittsdam>, and Shu Chun in <Asia Orphans>.

Although the times have changed, they have depicted Taiwan's traditional feminine form by responding silently under the patriarchal system and blindly maintaining traditional customs. On the contrary, all of them were anti-traditional women of the time, expressing their actions and dissatisfaction as Yue gui to reality, Yue ying as suicidal suicide, Yu lan as betrayal, and Shu chun as part of a more active act.

Key words : Wu Zhou Liu(吳濁流), Taiwanese women, Traditional woman figure, Anti-traditional woman figure, Japanese occupation

투 고 일 : 2019. 10. 10. / 심 사 일 : 2019. 10. 15. ~ 2019. 11. 15. / 게재확정일 : 2019. 11. 20.

